

음운론에 있어서의 빈자리 조건

전 은

이 논문의 목적은 음운현상의 본질적 특성을 규명하는 데 있다. 우리가 음이 여러 자질로 구성되어 있고 자질이 명시되는 단계가 어휘부, 후어휘부 등에 따라 다르다고 전제할 때 어휘부 음운현상은 해당된 자질이 명시되어 있는 음에서 그 자질의 표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비어 있는 음으로 이동해가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를 빈자리 조건이란 원리로써 형식화한다. 따라서 빈자리 조건이란 어휘부에서 삽입규칙일 경우 그 자질에 대하여 비어 있는 자리에만 적용된다는 조건이다. 이와 같은 빈자리 조건은 음운현상의 본질적 규제원리로 간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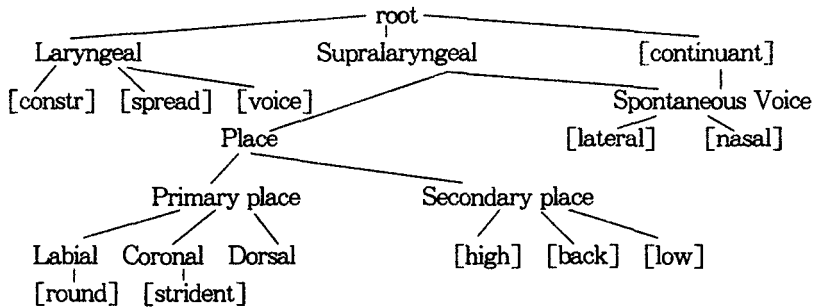
어휘부에서의 음운현상은 무표음에서 유표음으로 바뀌어지는 범주적인 것으로, 후어휘부에서의 음운현상은 점진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는데 이는 어휘부에서는 빈자리에만 자질이 삽입되는 반면, 후어휘부에서는 빈자리 조건과 무관하므로 자질들이 명시되어 차 있더라도 자질들이 삽입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된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장에서는 영어 자음의 기저어휘 구조를 간략하게 검토한다. II장에서는 어휘부에서의 음운현상이 실제로 비어 있는 자리로 적용되는지 살펴 본다. III장에서는 어휘부가 level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첫째 level에서 적용되던 음운현상이 둘째 level에서는 중단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 이유가 빈자리 조건에 의해 설명된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어휘부에는 후어휘부와 달리 예외적인 경우가 많이 존재하는데 그와 같은 예외적인 단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가능한 한 기저표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에서—빈자리 조건에 입각하여 분석된다.

I. 기저어휘 구조

본문에서의 기저어휘 구조는 잠재표기(Archangeli 1984, Levin 1985, Bowersky 1986, Archangeli & Pulleyblank 1986)와 자질 수형도(Clements 1985, Sagey 1986)를 결합하여 정해진다. 어휘부에 예측 불가능한 정보만 나타날

때, 예측 가능한 가치는 무표가치, 예측 불가능한 가치는 유표가치가 되며 이와 같은 유무표 가치의 기준은 보편 유표성이론(Universal Markedness Theory, Chomsky & Halle 1968, Kean 1975)에 따른다. 이에 의하면 치경 파열음 /t/가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되며(Paradis & Prunet 1991a), 모음은 /i/, /u/, /a/가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자질들의 표시가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질 수형도 이론은 Sagey (1986) 이후 세부적인 구조에 대해 많이 논의되었다(Rice & Avery 1991, Steriade 1987b, Paradis & Prunet 1989, Archangeli & Pulleyblank 출판예정, Lahiri & Ever 1991). 각 내용을 검토하고 (1)과 같은 구조를 채택한다.¹

(1)



만약 잠재표기이론을 SPE식 평면적 표시에 적용시킨다면 같은 자질의 무표성에 대해서 이중성이 초래된다. 예를 들면 [-nasal] 가치가 저해음인 경우 무표적이면서 공명음에게는 [+nasal]이 무표적이다. 그러나 잠재표기와 계층구조가 결합된 (1)에서는 [nasal] 자질이 SV마디의 지배를 바로 받기 때문에 [-nasal] 가치가 유표적임이 명백하게 나타난다.

1. 1. 자음

범주적으로 저해음이 공명음보다, 파열음이 마찰음보다, 무성음이 유성음보다 무표적이다. SV마디 내에서는 [+nasal]과 [-lateral]이 무표적이다. 이를 도표로 만들면 (2)와 같다.

(2)

| 변별자질 | 유표자질 | 무표자질 |
|------------|-------------|-------------|
| sonorant | +sonorant | -sonorant |
| continuant | +continuant | -continuant |
| voice | +voice | -voice |
| nasal | -nasal | +nasal |
| lateral | +lateral | -lateral |

¹ Laryngeal, Supralaryngeal, Spontaneous Voice, Place node 등은 단가(privative)의 개념으로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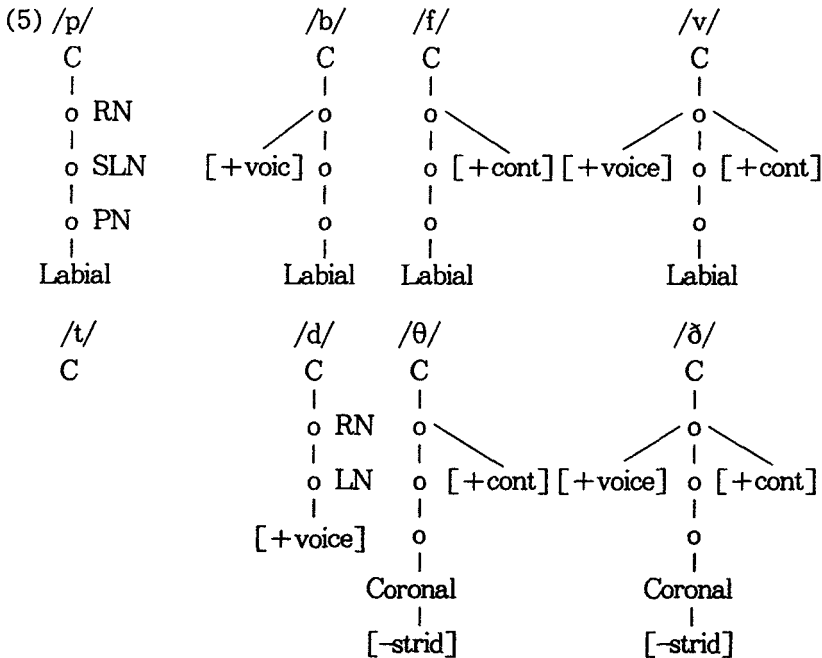
(2)의 무표자질은 최초 기저어휘표시에 표시되지 않으며 나중에 (3)에 있는 잉여 규칙에 의해 도입된다.

- (3) a. [] → [-sonorant]
- b. [] → [-continuant]
- c. [] → [-voice]
- d. [] → [+nasal]/[+son]
- e. [] → [-lateral]/[+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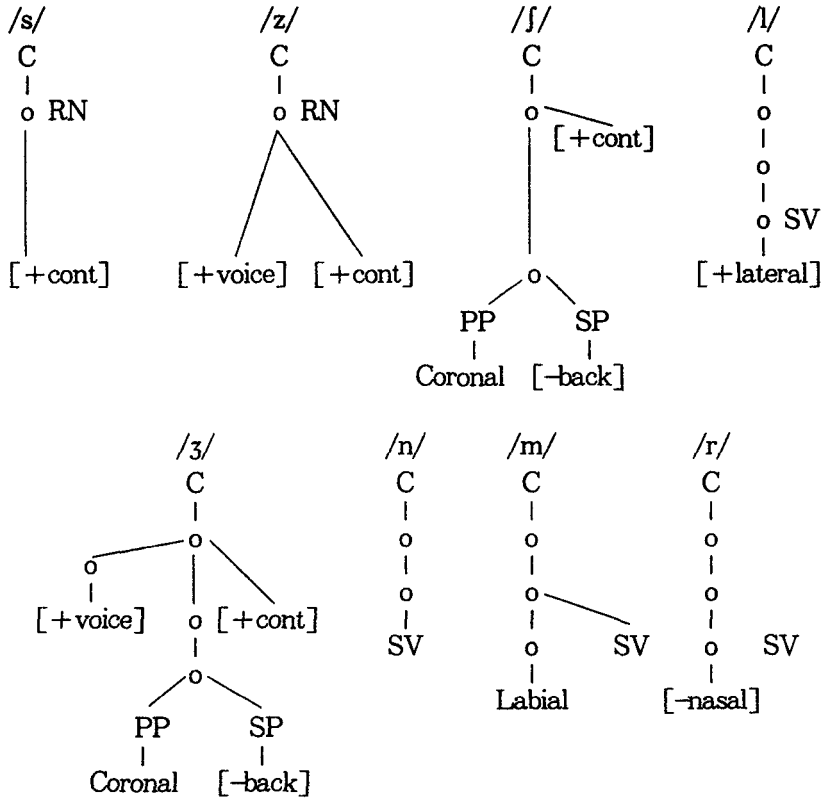
(3)의 가치는 무표적이거나 대조적이므로 1단계 맨 마지막에서 도입된다. 반면에 비대조적 잉여가치는 후어휘부에서 해제되는 (4)와 같은 표시조건에 의해 어휘부에서의 표시가 규제된다.²

- (4) a. * $\left[\begin{array}{c} V \\ \alpha \text{ voice} \end{array} \right]$ * $\left[\begin{array}{c} V \\ \alpha \text{ cont} \end{array} \right]$
- * $\left[\begin{array}{c} +\text{cons} \\ \alpha \text{ constricted} \end{array} \right]$ * $\left[\begin{array}{c} +\text{cons} \\ \alpha \text{ high} \end{array} \right]$ * $\left[\begin{array}{c} +\text{cons} \\ \alpha \text{ low} \end{array} \right]$ * $\left[\begin{array}{c} C \\ \alpha \text{ round} \end{array} \right]$
- b. palatal h
- | |
- [-back] [+spread]

이제까지 살펴 본 결과 어휘부에 기재되는 자음의 기저구조는 다음과 같다.



² (4a)는 부정적 표시조건인 데 반하여 (4b)는 긍정적 표시조건이다.



RN: root node
 SLN: Supralaryngeal node
 PP: Primary place
 SP: Secondary place
 SV: Spontaneous voice

II. 빈자리 조건과 음운현상

2. 1. 어휘과정

본 절에서는 어휘과정의 음운과정이 실제로 빈자리에 적용되는지 살펴 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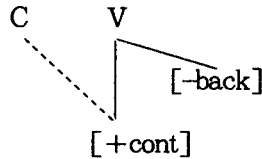
① 마찰음화

영어에서는 /t/와 /d/가 뒤에 /y/가 올 때 각기 다음과 같이 마찰음 /s/와 /z/로 변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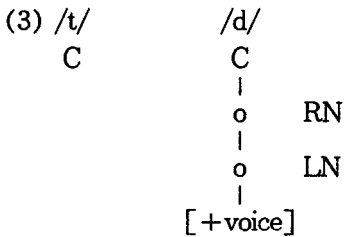
- (1) /t/ /s/
 democrat ~ democracy
 resident ~ residency
 vacant ~ vacancy

마찰음화는 대부분의 언어에서 나타나며 뒤에 오는 앞모음이나 전이음의 영향으로 파열음이 마찰음으로 동화되는 과정이다(Mascaro 1984). 그러므로 동화과정을 잘 표현해 주는 전파과정(spreading process)으로 나타내 주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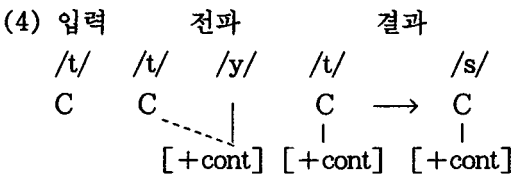
(2) 마찰음화³



/t/와 /d/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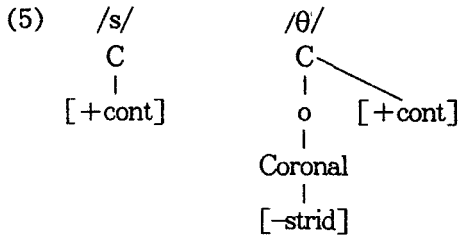
(3)에서 보듯이 /t/와 /d/의 기저구조에는 [cont] 자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자리가 비어 있다. 따라서 마찰음화는 이와 같이 [cont] 자질이 비어 있는 파열음에 대하여 [cont] 자질이 이동해 들어가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⁴



[cont] 자질이 들어온 /t/는 /s/의 구조와 일치하나 /θ/와는 일치하지 않으므로 /θ/로 나타나지 않는다.

³ 환경음에 있어서 [+cont] 자질은 환경의 기술까지 포함하는 확대잉여규칙순서 제한(Extended Redundancy Rule Ordering)에 의하여 활성화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⁴ p나 b, 또는 k나 g도 [cont] 자질이 비어 있는데도 마찰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θ나 β 또는 x나 γ가 영어의 음소가 아니므로 구조보존(Structure Preservation)에 의하여 통제된다.



이와 같이 어휘부에서의 마찰음화는 빈자리로 자질이 이동해 들어가는 현상임을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② 구개음화

영어에서 구개음화는 어휘부에서뿐만 아니라 후어휘부에서도 나타난다. 똑같은 하나의 과정이나 우선 여기에서는 level 1 접사 앞에서 나타나는 구개현상을 살펴 보겠다. 1단계에서의 구개음화는 /s/나 /z/가 뒤에 오는 y 앞에서 [š]나 [ž]로 바뀐다.

- (6) s~š: space~spacious
 race~racial
 z~ž: confuse~confusion
 erase~era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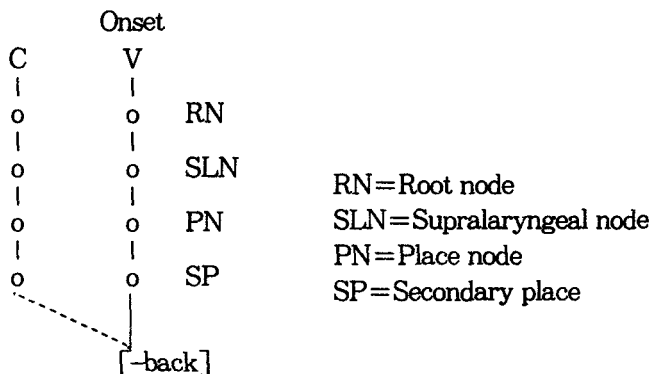
/t/나 /d/에 적용된 마찰음화의 결과인 /s/나 /z/도 계속해서 구개음화 과정을 거치며, 연구개음 연음화 과정에 의하여 바뀌어진 /s/도 계속해서 구개음화 과정을 밟는다.⁵

- | | | |
|---|--|---|
| (7) /t/ ~ [š] devote~devotion delete~deletion percept~perception | /d/ ~ [ž] decide~decision divide~division invade~invasion | /k/ ~ [š] logic~logician music~musician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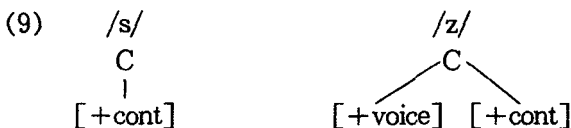
구개음화도 대부분의 언어에서 검증되는 일반적인 동화현상이다(Lahiri & Evers 1991). 그러므로 구개음화는 y의 구개성, 즉 [-back] 자질이 전파되는 과정으로 나타낸다.

⁵ 특수한 규칙이 일반 규칙보다 앞서 적용된다는 Kiparsky의 여타조건(Elsewhere Condition)에 의하여 마찰음화의 환경이 구개음화의 환경보다 더 특수하므로 마찰음화가 구개음화에 앞서 적용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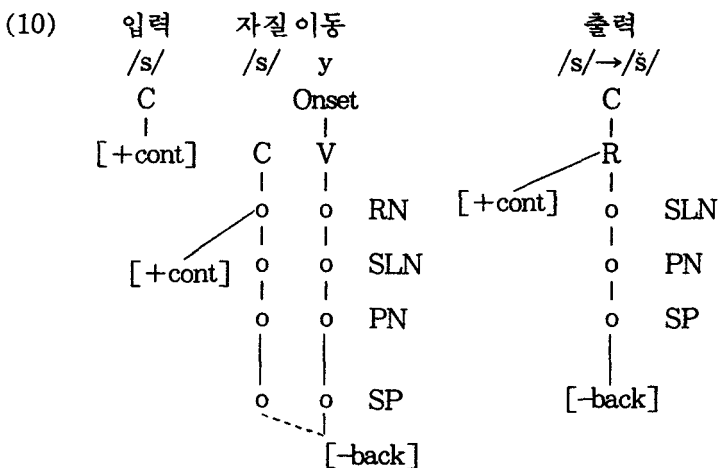
(8) 구개음화



구개음화의 입력대상인 /s/와 /z/의 기저구조를 살펴 보자.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s/와 /z/는 [back] 자질이 비어 있다. 따라서 구개음화는 [back] 자질이 차 있는 곳에서 비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구개음화에 의하여 [-back] 자질이 전파된 /s/나 /z/는 그 구조가 기존의 /s/나 /z/와 동일하여 /s/나 /z/로 나타난다.⁶



③ 비음동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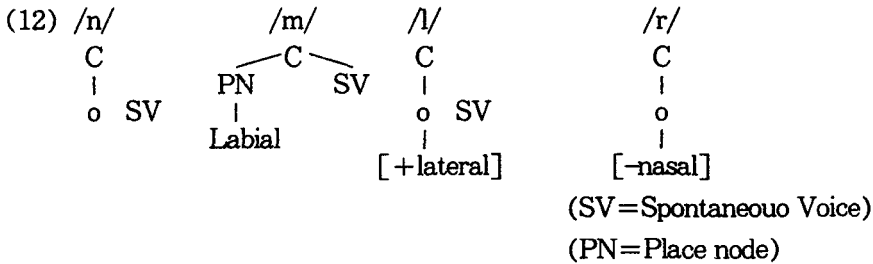
/in-/의 비음은 뒤에 공명음이 뒤따르면 (11a)처럼 그 공명음으로 바뀌

⁶ /s/의 중간 마디는 기저층에 잠재표기되어 있으나 [-back]이 전파될 시 마디생성약정(Node Generation Convention, Archangeli & Pulleyblank 출판 예정)에 의하여 표면에 드러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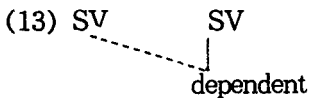
고 저해음이 뒤따를 경우에는 (11b)처럼 그 저해음의 조음 위치에 동화된다.

- (11) a. /in-/ b. /in-/
 irrational imbalance
 illegible impossible
 irresistible intan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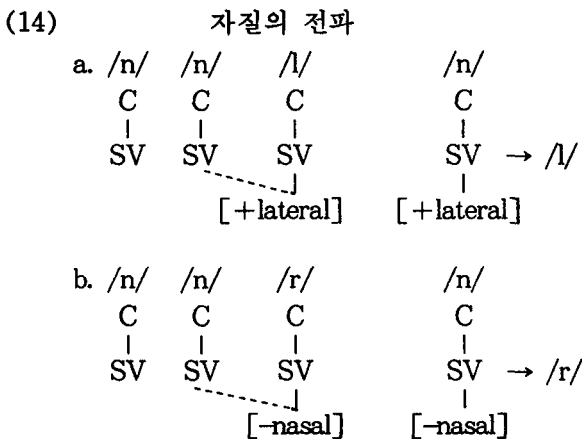
공명음들의 기저구조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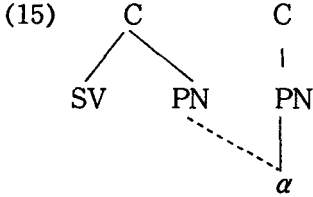
/in-/이 /il-/이나 /ir-/로 바뀌는 과정은 SV마디 아래에 있는 [+lateral]이 나 [-nasal] 자질이 대상음인 /n/의 비어 있는 자리로 전파되는 동화과정으로 분석된다.



뒤에 오는 유음이 l인 경우에는 [lateral] 자질이 전파되고 r인 경우에는 [-nasal] 자질이 이동되는데 이와 같은 자질이 들어찬 n은 기존의 l과 r의 기저구조와 일치하므로 l이나 r로 나타나게 된다.



한편 뒤에 오는 음이 저해음인 경우에는 그것의 위치자질이 대상음인 /n/의 비어 있는 자리로 전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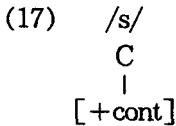
(15)는 (13)과 달리 전파될 SV가 없으므로 (13)의 과정은 일어나지 않는다. /in-/의 n은 기저구조에 위치마디 아래의 자질에 대하여 자리가 비어 있다. 만약 [labial] 자질이 들어오면 /m/으로 나타나게 된다.

④ /s/-유성음화

/s/-유성음화는 s가 양쪽 모음 사이에 있을 때 (16)과 같이 /z/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 | | |
|------|--------|---------|
| (16) | [z] | [s] |
| | resign | consign |
| | resume | consume |
| | resist | consist |

/s/의 기저구조는 [voice] 자질에 대하여 비어 있다.



/s/-유성음화는 모음의 [+voice] 자질이 /s/의 비어 있는 곳으로 전파된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s/에 [+voice] 자질이 들어가면 이는 /z/의 구조와 동일하므로 [z]로 나타난다.

⑤ 연구개음 연음화

연구개음 연음화 과정은 k나 g가 다음과 같이 s나 j로 바뀌는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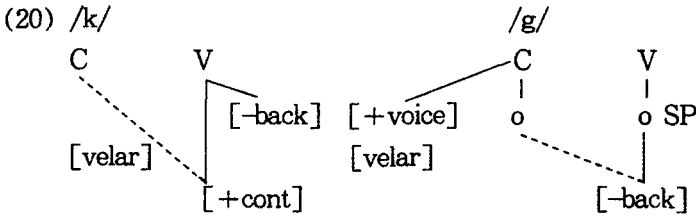
| | | |
|------|----------|-------------|
| (18) | [k] | [s] |
| | critical | ~ criticism |
| | [g] | [j] |
| | rigor | ~ rigid |

그러나 연구개음 연음화 과정은 모든 연구개음에 해당되지 않는다. 어원상으로 Greek계나 Latin계에만 해당되며 (19)와 같은 순수 영어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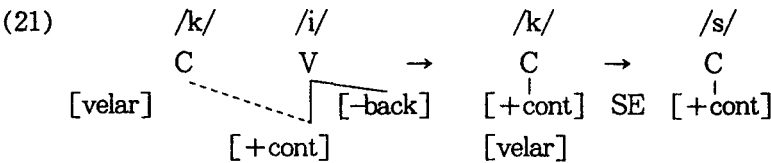
- (19) [k] [g]
- king, kin, kill gill

우리는 이와 같이 Greek계나 Latin계에 속하는 어휘의 연구개음은 어휘부에서의 기저구조에서 다른 연구개음과는 달리 [Velar] 위치자질이 뿌리마디에 정착되지 않고 떠 있는(floating) 것으로 가정한다.

이제 연구개음 과정은 마찰음화나 구개음화와 마찬가지로 뒤에 오는 /i/나 /e/의 영향으로 /k/는 /s/로 마찰음화되고 /g/는 [ʝ]로 구개음화되는 동화과정으로 분석된다.



/k/에 [+cont] 자질이 전파되면 영어에는 continuant velar라는 음소가 없기 때문에 떠 있는 [Velar] 자질은 뿌리에 정착되지 못하고 결국 SE(Stray Erasure)에 의하여 제거된다. 그 결과 /s/의 기저구조와 똑같이 되므로 /s/로 나타난다.⁷



마찬가지로 /g/에 [-back] 자질이 전파되면 Valar와의 결합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Velar] 자질은 뿌리마디에 정착되지 못하고 SE에 의해서 지워진다.

⑥ CC 단모음화

영어에서 두 개의 자음이 뒤따르는 모음은 대부분 아래와 같이 짧은 모음

⁷ SPE에서는 연구개음 연음화에 의하여 일차적으로 /k/가 /c/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지만 /c/는 영어에 없는 음소이다. 본문에서는 단 한 차례의 작용으로 /k/가 /s/로 직접 바뀌어진다고 설명된다.

으로 나타난다.

- (22) (i) leave~left assume~assumption
 mean~meant convene~convention
 sleep~slept intervene~intervention
- (ii) CC 단모음화
 V → [-short]/—CC

영어의 음운현상에서 [-long] 자질이 보다 활동적이고, 보다 활동적인 가치가 유표적이기 때문에 [-long] 가치를 유표가치로 간주한다. 기저표시는 다음과 같다.

- (23) (i) put sit pot bet
 | | | |
 [-long] [-long] [-long] [-long]
- (ii) sale name keep feel
 | | | |
 [olong] [olong] [olong] [olong]

이제 단모음화 과정은 아래와 같다.

- (24) [[lef]t] [[dep]th] [[mean]t] [[conven]tion]
 [o long] [o long] [[o long] [[o long]
- CC 단모음화
- long -long -long -long
 [left] [dɛpθ] [mɛnt] [kɔnvɛnʃən]

예를 들면 [[lef]t]는 [long] 자질에 대해서 비어 있으므로 CC 단모음화에 의한 [-long] 자질의 삽입은 빈자리 조건을 만족시킨다. 한편 CC 단모음화와 무관한 형태는 나중에 잉여규칙에 의하여 무표가치인 [+long] 가치가 나타나게 된다.⁸

- (25)
- | | | | |
|---------|---------|---------|---------|
| | leave | deep | mean |
| | | | |
| | [olong] | [olong] | [olong] |
| CC 단모음화 | n. a | n. a | n. a |
| | leave | deep | mean |

⁸ 단어 끝의 설단(coronal) 자음군은 일반적으로 부가물(appendix)로 여겨져 왔으므로 기저형태가 다음과 같다: chi(ld), wi(ld), bea(st), pai(nt).

⑦ 제3음절 단모음화 규칙

제3음절 단모음화 과정은 (24)에서 보듯이 두 개의 음절이 뒤따르는 음절의 모음이 짧은 모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24) (i) líne~linear

nātion~nātional

rēfer~rēferent

(ii) 제3음절제 단모음화 (Trisyllabic Laxing TSL).

$$V \rightarrow [-\text{long}] / _$$

$$\quad \quad \quad |$$

$$\quad \quad \quad \sigma \quad \sigma \quad \sigma$$

제3음절 단모음화 과정은 CC 단모음화와 비슷하다. [long] 자질에 대하여 비어 있는 자리에 제3음절 단모음화에 의해 [-long] 자질이 삽입된다.

(25)

| | | | |
|-----|------------|--------------|--------------|
| | [[line]ar] | [[nation]al] | [[refer]ent] |
| | | | |
| | [olong] | [olong] | [olong] |
| TSL | -long | -long | -long |

한편 TSL의 환경과 무관한 단어들은 무표가치인 [+long]의 가치를 부여 받는다.

2.2. 후어휘부 과정

이제까지 어휘부에서의 음운과정이 어떻게 빈자리에 적용되는지를 살펴 보았다. 빈자리 조건은 어휘부에서의 과정을 규정하므로 후어휘부에서의 과정은 빈자리가 아니더라도 자질이 삽입될 수 있다.

(26) (i) 원순음화

s[q^w]uare, lan[g^w]age, [q^w]ui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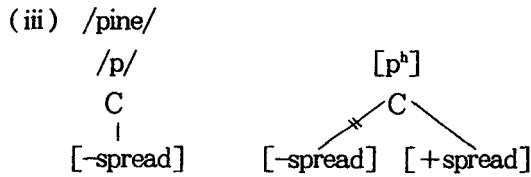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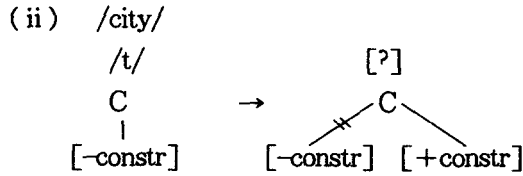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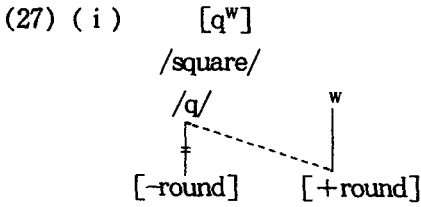
(ii) 성문폐쇄음화

ci[ʔ]i, pe[ʔ]er

(iii) 기식음화

[p^h]ine, [k^h]ream, [t^h]ype

위의 과정은 대표적인 후어휘부 과정인데 (27)에서 보듯이 빈자리가 아닌데도 나타난다.



III. 규칙의 중단과 빈자리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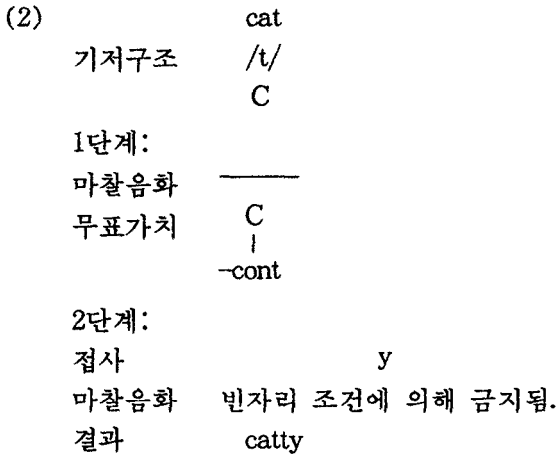
level 2 접사가 붙는 경우에는 규칙의 환경이 만족되더라도 level 1 접사에 서와는 달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장에서는 이들 규칙의 적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이유를 빈자리 조건에 의거해서 살펴 보겠다.

① 마찰음화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level 2 접사인 y 앞에서의 /t/는 level 1 접사인 y 앞에서와는 달리 /s/로 변하지 않는다(Borowsky 1986).

| | | | | |
|-------------|-------------|---------|---------|--------|
| (1) (a) 1단계 | | (b) 2단계 | | |
| /t/ | [s] | /t/ | [t] | *[s] |
| democrat | ~ democracy | cat | ~ catty | *cassy |
| vacant | ~ vacancy | rat | ~ ratty | *rassy |
| resident | ~ residency | | | |

우리는 2장에서 보았듯이 (1a)의 t → s의 과정에서는 [+cont] 자질이 /t/의 빈자리로 전파됐다. 한편 마찰음화와 무관한 /t/는 level 1 맨 끝에서 무표가치이긴 하나 대조적 가치인 [-cont] 자질을 부여받는다. level 2에 이르렀을 때는 level 2 접사 y가 붙어 마찰음화의 환경이 조성되더라도 이미 [cont] 자질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으므로 빈자리가 없어 빈자리 조건에 의해 [cont] 자질의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빈자리 조건은 (1b)에서 왜 t가 s로 변하지 않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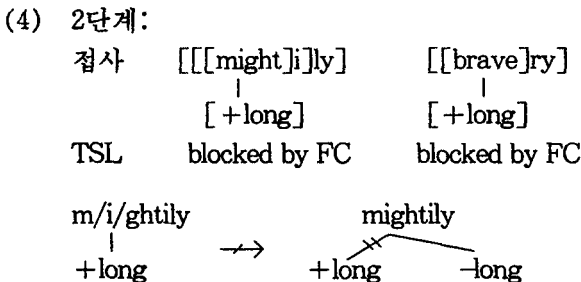
② 제3음절 단모음화

제3음절 단모음화 과정도 (3)에서 보듯이 level 1 접사와 level 2 접사가 붙을 때 서로 다르게 적용한다.

| | |
|---|---|
| <p>(3) (a) level 1</p> <p>line ~ līnār</p> <p>nation ~ nātionāl</p> <p>refer ~ rēferent</p> | <p>(b) level 2</p> <p>might ~ mightily *mīghtily</p> <p>brave ~ brāvery *brāvery</p> <p>weary ~ weariness *wēriness</p> |
|---|---|

그 차이점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3b)에 있는 단순어들은 그 환경이 level 1에서는 제3음절 단모음화와 무관하다. 이들은 level 1 맨 마지막 끝에서 무표가치이긴 하나 대조적 가치인 [+long] 자질을 부여 받는다. level 2에 이르러서 level 2 접사가 첨가되어 제3음절 단모음화 환경이 조성되더라도 이미 [+long] 자질에 대하여 자리가 비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3음절 단모음화가 아래와 같이 일어나지 않는다.



FC: Free Condition (빈자리 조건)

③ CC 단모음화

CC 단모음화도 level 1과 level 2에서 아래와 같이 다르게 행동한다.

| | | | | | | |
|-----|-----|-----------|--------------|-----|-----------|------------|
| (5) | (a) | \bar{V} | \check{V} | (b) | \bar{V} | \bar{V} |
| | | convene | ~ convention | | foul | ~ foulness |
| | | wise | ~ wisdom | | dear | ~ dearly |
| | | five | ~ fifth | | mouth | ~ mouthful |
| | | mean | ~ meant | | peel | ~ peeled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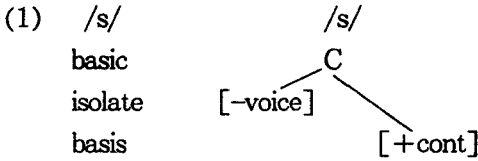
convention이나 foulness가 둘 다 똑같이 두 개의 자음이 뒤따르지만 convention의 경우에만 단모음화되었고 foulness는 단모음화되지 않았다. 이것은 제3음절째 단모음화와 마찬가지로 level 1에서는 [long] 자질에 대한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CC 단모음화 과정이 일어나나 level 2에서는 이미 자리가 차 있어서 빈자리 조건에 의해 그 과정이 금지된다.

| | | |
|-----|---------|---------------|
| (6) | | [[foul] ness] |
| | 1단계: | foul |
| | 기저구조 | |
| | | [olong] |
| | CC 단모음화 | _____ |
| | 잉여규칙 | [+long] |
| | 2단계: | |
| | 접사 | [[foul] ness] |
| | | |
| | | +long |
| | CC 단모음화 | blocked by FC |
| | 결과 | foulness |

이제까지 마찰음화, 제3음절째 단모음화, CC 단모음화 등이 level 2에서의 적용이 금지되는 이유가 빈자리 조건에 의하여 설명됨을 살펴 보았다. /s/-유성음화, 연구개음 연음화과정 등도 마찬가지로 설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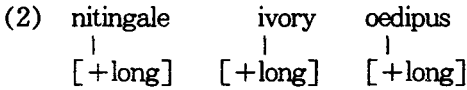
IV. 예외 단어

어휘부에서는 일반적인 음운현상에 대한 예외적인 어휘가 다수 존재한다. 이 예외적인 어휘에 물론 [-규칙 n]과 같은 정보가 첨가된다고 처리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이른 자체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장에서는 잠재표기이론과 빈자리 조건에 의거하여 설명하겠다. 우선 예를 살펴 보자.



(1)에 있는 단어들은 /s/-유성음화에 대하여 예외적이다. 우리는 이들이 어휘부에 기재될 때 다음과 같이 예외적으로 [-voice] 자질이 명시되어 있다고 가정한다.⁹ 그러면 이들에게 /s/-유성음화는 유무성에 대한 자리가 비어 있지 않으므로 빈자리 조건에 의해서 허용되지 않는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2)에 있는 단어들도 다루어진다.



이들에게는 예외적으로 [+long] 자질이 표시되어 있다고 전제할 때 빈자리 조건에 의해 제3음절 단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음이 설명된다.

이상으로 어휘부의 예외적인 단어들이 빈자리 조건에 의거하여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지 살펴 보았다. 그들은 어휘부에 대조적 무표자질이 특별히 명시되어 있다고 가정된다. 그러면 빈자리 조건에 의해 음운규칙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V. 맺음말

이제까지 음운현상을 규제하는 본질적 특성 중의 하나로서 빈자리 조건을 제시하고 그 이론적, 실제적 의미에 대하여 간단하게 검증해 보았다. 아울러 빈자리 조건이 어떻게 음운론에서 일관되게 작용하는지에 대하여 영어자료를 토대로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참고문헌

- 전 은(1992) 빈자리 조건과 영어 어휘 음운론, 서울, 한신문화사.
 Archangeli, D. (1984) 'Underspecification in Yawelmani Phonology and

⁹ 모든 잉여자질이 예외적으로 명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조적 가치가 있는 무표가치만이 명시된다. 잉여규칙순서제한(RROC)에 의해서 잉여자질을 언급하는 음운규칙이 있을 시에는 잠재표기된 잉여가치가 음운규칙에 앞서 도입되므로 음운규칙이 적용될 당시에는 오직 이원적 가치 대립만 존재하게 되므로 제3의 가치 대립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 Morphology,' Ph.D. Dissertation, MIT.
- Archangeli, D. (1988) 'Aspects of Underspecification Theory,' *Phonology* 5, 183-203.
- Archangeli, D. and Pulleyblank (forthcoming)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Phonological Representation*.
- Avery, P. and K. Rice (1989) 'Segment Structure and Coronal Under-specification,' *Phonology* 6. 2, 179-200.
- Borowsky, T. (1986) 'Topics in the Lexical Phonology of English,'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 Chomsky, N. and M. Halle (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Harper and Row: New York.
- Clements, G. N. (1985) 'The Geometry of Phonological Features,' *Phonology Yearbook* 2, 225-252.
- Davis, Stuart (1990) 'An Argument for the Underspecification of [coronal] in English,' *Linguistic Inquiry* 21, 301-306.
- Halle, M. (1977) 'Tenseness, Vowel Shift, and the Phonology of the Back Vowels in Modern English,' *Linguistic Inquiry* 8, 611-25.
- Halle, M. and K. P. Mohanan (1985) 'Segmental Phonology of Modern English,' *Linguistic Inquiry* 16, 57-116.
- Iverson, G. K. (1989) 'On the Category Supralaryngeal,' *Phonology* 6. 2, 287-303.
- Kean, M-L. (1975) 'The Theory of Markedness in Generative Grammar,' Ph.D. Dissertation, MIT.
- Kim, K-H. (1987) 'The Phonological Representation of Distinctive Features: Korean Consonantal Phonology,' Ph.D. Diss., U. of Iowa.
- Kiparsky, P. (1985) 'Some Consequences of Lexical Phonology,' *Phonology* 2, 83-138.
- Lahiri, A. and V. Evers (1991) 'Palatalization and Coronality,' *Phonetics and Phonology* 2, 79-100.
- Paradis, C. and J. F. Prunet (1989) 'On Coronal Transparency,' *Phonology* 6, 317-348.
- Paradis, C. and J. F. Prunet (1991a) *Phonetics and Phonology*, Academic Press, INC.
- Paradis, C. and J. F. Prunet (1991b) 'Introduction: Asymmetry and Visibility in Consonant Articulation,' *Phonetics and Phonology*, 1-28.
- Piggot, G. (1987) 'On the Autonomy of the Feature Nasals,' *CLS* 23, 223-

238.

Rice, K. and P. Avery (1991)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aterality and Coronality,' *Phonetics and Phonology* 2, 101-124.

Sagey, E. (1986) 'The Representation of Features and Relations in Autosegmental Phonology,' Ph.D. Diss., MIT, Camb., Mass.

ABSTRACT

Free Condition and Phonology

Eun Jun

The aim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inherent nature of the phonological phenomenon. I suggest that processes inserting features apply only to the free/unspecified position lexically. It is formalized as the principle of Free Condition. It means that lexical phonological processes are directing toward the empty/unspecified position. I proceed to demonstrate how consistently Free Condition works as an explanatory principle in phonology, based on the data of English.

573-360

전북 군산시 미룡동 산 68

군산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